

■ 한국인 자랑스런 젓가락 문화

1.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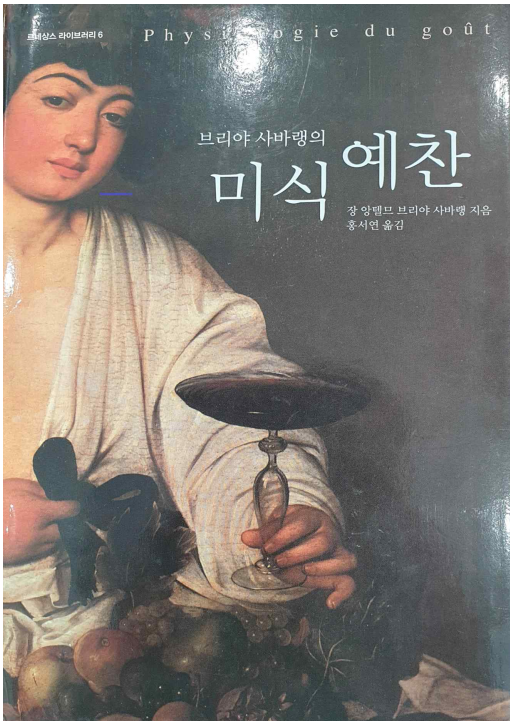
살아오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 “ 또는 부모가 교육을 ” 잘 못해서 그렇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모든 잘못을 부모가 책임을 진다.

나 또한 외갓집에서 자라 외삼촌이 ” 너가 잘못하면 네가 욕을 먹으니 행동을 조심해라” 식사 당사자인 네가 잘못 행동하면 부모가 교육을 잘못하여 그런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예절 교육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자랐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행동이 절제되고 특별히 실례가 되지 않는 예절과 행동으로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식사 자리에 어린 아기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 장소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떠돌고 웃느라고 밥알이 튀어나와도, 배부르게 먹으면 엄마는 흐뭇 기분이 좋다. 밥을 입에 넣고 찹찹 소리를 내면서 먹어도, 크면서 고쳐지겠지 하고 그냥 둡니다. 그런데 커서 나이가 들었을 때 고쳐 보려고 하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되어서도 못 고치는 것이 식탁 예절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사 중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이러한 식사 예절은 계층 간의 아비투스(문화적 취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돈이 많은 사람이 식사 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줄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식사 예절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린다. 인간들이 먹는 식습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먹는 습관을 보는 사람에 따라 가치(Value)관, 인성(人性), 의전(儀典) 등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18세기 유명한 미식가 “브리야사바랭” 이 저술 【미식 예찬】의 내용 중에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라는 식습관과 건강에 대하여 논했으며, 동서 고전(古典)과 선지자(先知者)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식사의 예절의 중요함을 첫째로 여겼다,

지구촌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물리적 영토 전쟁 시대에서 두뇌 영토 시대로 변하는 글로벌 시대!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유전인자인 젓가락 문화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식사중 상대방 젓가락질 행동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과 인간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고 선배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젓가락으로 면접 시험을 본다는 기사를 보고 느낀점이 많아 정리했다.

※아비투스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에 의해 산출되고 내면화된다.

2. 젓가락 예절

○ 젓가락도 사용 예절이 엄연히 있다.

젓가락 사용자 대부분은 배웠든 아니든 간에 숙지하고 있는 가벼운 에티켓. 국가별로 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편이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 젓가락 사용 예절은 비슷하다.

◇ 금기사항 ◇

- ① 젓가락 쓸 때 젓가락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 ② 젓가락으로 그릇이나 접시를 밀거나 당기는 행위는 실례이다.
- ③ 젓가락으로(특히 음식에 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 ④ 젓가락을 그만 쓸 때 음식에 꽂아 세워놓거나, 세로로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아놓는 행위는 제삿밥에서나 하는 일로 여기며,
놀랍게도 중국식 제사를 받아들이는 동아시아 4국 공통으로 해당하는 인식이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실례라고 생각한다.

◇ 이걸 맞나? ◇

'젓가락으로 밥 집어 먹기'

한식에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혼밥 문화가 퍼지면서 젓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는 것을 젊은 세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일도 있으나,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예의 없는 행동이다

○ 공공 업무의 의전(儀典) 자리에서의 경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고위직과 업무 절차에 따라 발표, 만찬, 그리고 마무리 등의 의전(儀典) 절차에 의하여 고급 간부를 보좌하는 수행 비서가 상사 습관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빈틈없이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며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최 측 본인이 행사장 주변을 인간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이끌어 행사장 분위기 달라지는 것을 보며 훌륭한 예의·기품이 그런 직위에 오르게 됨을 가늠하게 됩니다.

본인의 사회생활과 공직자의 기본윤리 교육에서의 사회적인 책임 본인의 처세술.

민원인의 대응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기준이 있지만 좋고 나쁜 모습을 가려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반복된 행동(行動)이 모여 습관(習慣)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격(性格)이 되며,

가치(Value)관·인성(人性)·의전(儀典)은 그 집안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되며 예절이며 대화법 등 사회적 공유와 배려·지도력 등을 대가족(할아버지·아버지. 나.

3대) 제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찍 깨달을 수 있는 그 집안의 가풍(家風)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으며 많은 예절 교육이 있지만, 그중에 식사 예절 중의 하나인 젓가락 습성과 인성에 대하여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3. 동양에서의 젓가락 사용법

젓가락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식사 도구의 일종이다.

주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으며 태국과 티베트,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젓가락은 주로 국수를 먹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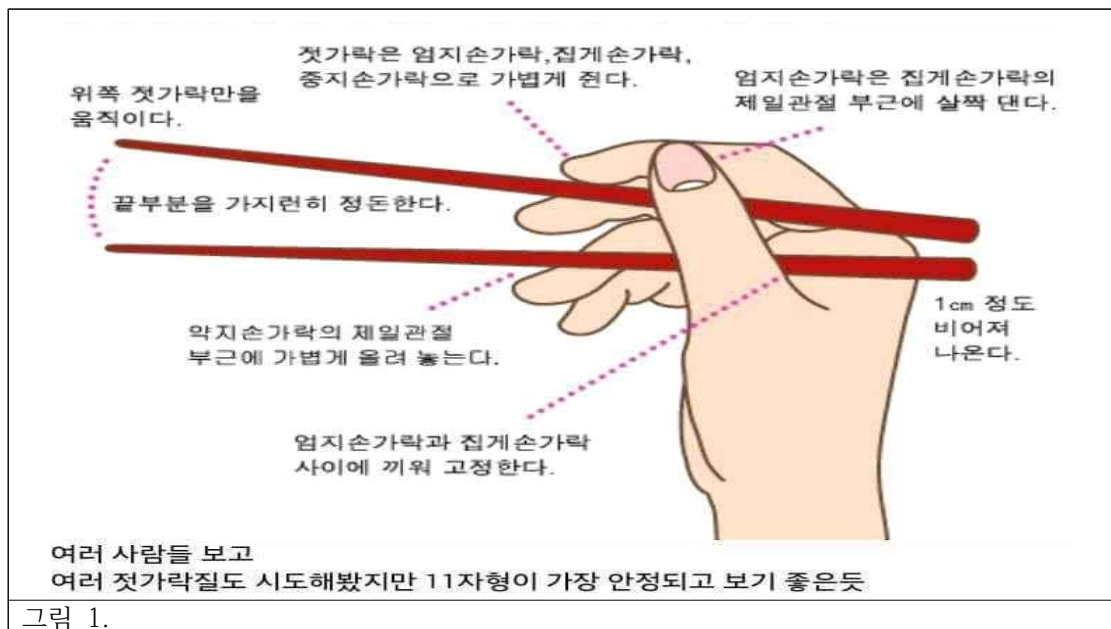
○ 사용법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사용한 듯하다. 청동기 시대 숟가락이 발굴되지만, 젓가락은 삼국시대 이전 것은 발굴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중기까지도 서민 계층에서는 숟가락만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젓가락질은 장장근(長掌筋)이라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관장하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젓가락을 일상 식생활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이다.

특히 한국의 음식 중 콩이나 국수, 라면, 냉면, 김치 나물류 등은 젓가락으로 먹어야 위생적이며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은(그림1 참조) 식사 도구 중 가장 어렵다.

그냥 손으로 쥐고 필요한 방향으로 팔과 손목만 움직이면 되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단순한 다른 식사 도구와 달리, 젓가락은 팔과 손목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손가락으로 미세하게 움직임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식사에 사용할 만큼 자주 쓰게 되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4. 젓가락질 논란

젓가락질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면 어른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에디슨 젓가락이 나온 것이다.

성인의 젓가락질이 '정석'과 다르면 인성의 문제로 보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P 대학 박영현 교수는 “젊은 청소년들의 젓가락 사용법이 서투른 것은 가정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했다
할아버지와 부모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예의범절을 배웠다.

- ①집안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먼저 식사하면 그 뒤를 따라 식사를 하고
- ②식탁에 팔을 기대고 먹지 않는다. - 아주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지적받는 사람도 있다.
식탁 앞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만약 오른손을 식기구를 든다면 오른손은 식탁에 약간 기대고 왼손은 식탁 아래에 두는 것이 정석적인 식사 자세다.
- ③젓가락질은 밥 상위에서 반찬을 한꺼번에 집어서 먹지 이리저리 그릇 위에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다.
- ④숟가락과 젓가락은 한 손에 동시에 들고 사용하지 않는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숟가락을 상 위에 놓아야 한다.
- ⑤식사 중 숟가락과 젓가락은 반찬 그릇 위에 걸쳐 놓지 않는다.
- ⑥숟가락을 삼처럼 잡지 않는다. - 굳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숟가락을 삼처럼 잡는 것은 노동자 중에서도 최하층 계급이나 하는 식사 풍경이다.
- ⑦식사 중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도 소리 나지 않게 오물쭈물하게 씹어 삼킨다.
- ⑧모든 식탁에서는 즐거운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하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소화기관이 경직되어 체하거나 탈이 생긴다.

위와 같이 많은 식사 예절이 있어 우리가 좋은 모습은 더 많이 찾고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식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고 행동 왔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나 자신만 편하면 그만이지라는 자기 이타적인 행동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걸 보여 주게 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공적인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리 변화의 중심에 있어도 전통 예절과 관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핵가족이 되고 자녀에 대한 관용과 사랑이 지나쳐 실수가 방종하며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젓가락 사용법이 쇠퇴해진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5. 젓가락질을 못 하는 원인

젓가락질을 못 하는 것을 가정 교육 문제라거나 노력 부족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육 습관이라고 본다.

모두가 완벽하게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어려서 저의 아들이 왼손으로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봤다.

일주일간 훈련을 시켜 지금은 오른손으로 또는 왼손으로 한다 (양손으로)

그냥 그대로 먹겠다는 아들과 지도하는 부모 모두가 처음 세상 살아가는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과 집념이 필요했다

절박했다 어려서 고치지 않으면 애를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페이지

이후 “6. 젓가락질하는 모습으로 본 삶의 교육 방법은!” 에 언급하지만,

이 젓가락 교육이 실패했을 때 부모와 자식과의 교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후유증이 크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골프를 독학으로 배워 시간은 많이 걸리고 본인의 독창적인 자세로 골프 점수는 좋았지만 어떤 그룹에서 창피 아닌 창피를 당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정말 고생하여 교정하면서 모든 교육은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뼈아프게 느끼었으며 일상 도구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에게 배우는 과정 정말 다르다. 가정에서는 체계적이며 전통적 예절 교육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부모가 많지 않고 드물다.

대개는 비효율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신뢰의 틈도 크다.

젓가락 교육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교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교육자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이 따로 존재 하겠는가?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예 전문가를 대동하고 교육하려는 열의를 보여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기가 사는 지금의 삶의 방식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부모 자신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 일일이 전문가를 찾기 귀찮다는 귀차니즘으로 때문에 좋은 교육법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하고는, 당연히 비효율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가 진도를 따라오지 못해도 그것을 자신이 잘못 교육해서 그렇다는 자아 성찰을 하기보다는

자녀가 게으르거나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하여 자녀를 혼내거나 욕박지르고는 예의 비효율적인 교육을 반복하는 식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순환이 되어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와 거리감만 안겨다 주게 되곤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와 사이가 틀어지면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널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타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젓가락질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자녀에게 교육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자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아무리 자신 있어도 어지간하면 제 뜻을 조금 굽히고 주변의 좋은 식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보여 주면서 서서히 좋은 젓가락 식사 모습을 습득하는 지혜를 얻는 데 중요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폭넓은 대화도 할 수 있는 서로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나무 위키 일부 인용-

6. 젓가락질하는 모습으로 본 삶의 교육 방법은!

□ 바른 경우

①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용했다

- ☞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에게 배웠다.
- ☞ 좋은 환경과 품격은 가정에서 이루어져 대화에 자신감이 있으며 행동도 절제된 모습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 ▶ 좋은 가문이란 전통적인 예와 절제의 교육이 되어 있는 경우다.

② 후천적인 영향으로 고쳐 사용했다

- ☞ 어떤 사건(충고, 계기)으로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여 삶의 자세를 교정하여 고쳤다
- ☞ 의전 행사 준비 예법 또는 고위직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으로 수정하여 식사 중 젓가락으로 식탁 앞의 콩을 자신이 있게 꼭 집어 먹을 수 있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는 여유가 생겼다.

□ 바르지 않는 경우

① 부모가 삶의 여유가 없어 자신도 추스르기 바빠 놓쳤다.

② 부모가 가르쳐 주었으나 고집이 있어 X 모양 이렇게 사용했다

- ☞ 부모가 바른 확신으로 끝까지 교육하여 양쪽 모두가 성취하는 걸 보여 주어야 하는데 포기하는 걸 먼저 가르쳐서 양쪽 모두 상처와 나쁜 선례를 남겼다.

③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하다.

-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다
 - ▶ 부모 잘못이 아니다. 부모는 현실을 쫓아가기에 바쁘다.

우선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

④ 부모가 노력했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포기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 이런 부류의 사람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읽으세요)

- ☞ 기본적으로 품성이 급하고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하다.
- ☞ 개성이 강하여 집단적 규범에 약하고 조직에 흡수되는 경향이 약하다.
- ☞ 자신의 잘못 행동하는 모습과 주변의 좋은 모습을 배우려는 노력과 호기심이 부족하다.

※ 이 의견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며 분명히 더 좋은 품성과 인격을 갖춘 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며 우리의 젓가락 예절이 먹기 위한 식습관이지만 젓가락질 문화의 깊은 성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 젓가락 예절에 감추어진 교육 방법과 품격의 평가

각자 집안의 기본예절 교육을 부모가 할 수도 또는 몰라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부모가 모르거나 시기를 놓쳐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공무원, 군인, 대기업의 간부 출신은 비만이 없고 일부분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불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어.
밥상머리의 모든 것이 부모와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7. 기업에서 젓가락 사용 능력을 면접으로

식품기업 샘표가 2017년 신입사원 공채’ 면접전형에서 국내 최초로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심사를 면접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2000년 요리 면접에 이은 파격이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우리 맛 연구중심’ 이란 새 구호에 걸맞게 우리 식문화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에서다.

▲ 2007년 서울 중구 충무로 샘표 사옥에서 실시된 이 회사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 올바른 젓가락 사용 능력 심사가 추가됐다.



※사진은 샘표 신입사원들이 젓가락 사용 교육을 받는 모습. 샘표 제공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서 국내 최초로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 심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진행되는 면접은 임원 면접, 실무자 면접, 요리 면접, 젓가락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와 지원자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본다.

“2013년부터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젓가락 교육을 시행하던 것을 아예 면접전형에 도입함으로써 샘표의 기업 가치와 철학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류 전형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인성(人性) 창의력, 팀워크, 지도력 등을 평가한다.

-----이하 중략-----

8. 젓가락질 정석의 결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각자의 습성대로 살고 먹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모습으로 좋은 습관으로 사회와 가족 간의 이타심이 가득한 호트러진 모습이 아닌 절제되고 가치 있는 자세와 행동이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고 가스트로노미의 예를 갖춘 식사는 더욱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MZ세대라 “꼰대” 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 자신들이 좋은 습관을 보여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운명도 밝은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가정환경과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도를 알면서 행동하는 것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지요.

두서없이 여기저기 있는 자료와 욕심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좋은 모습과 행동을 하고 살고

싶었지만, 막상 행동은 마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모습 좋은 행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잃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동성 DEVASVA

※가스트로노미란 먹는 것에 대한 미적 가치를 중시한다.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세련되게 하고 고도로 연구한 끝에 도달한 유별난 프랑스적인 문화를 일컫는다.

※ 역사상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식사에 즐거움을 느꼈다 식사에 즐거움은 다른 모든 쾌락 일부가 될 수 있고 모든 쾌락 중 가장 기억되며, 지인들이 다 죽고 혼자 여생을 보내는 사람을 위로해준다 -브리야 사바랭-